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형통이 찾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울은 죽었고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살며 주변 나라들인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아람 군대와와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즈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적군과 싸우고 있는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였습니다. 익히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밋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밋세바가 우리야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밋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감추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이 묻는 것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범한 죄는 사울이 범한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들이 있음에도 먼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야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야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범죄는 십계명의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 네 가지 이상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7절에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장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불려지고 반대로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죄를 범한 두 왕이었지만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결말

을 이토록 차이 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론은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를 보고 내가 상대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관점은 누가 더 많이 죄를 짓는가에 있고 누가 더 심한 죄를 짓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은 '너희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용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심판 주이신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면 다시 말씀 드리면 죄인인 인간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면 결국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13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행위가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였지만, 그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지금 한 순간에 어쩌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개는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게 될 때 자신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회개를 외적으로 보여지는 제사 행위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님께 드리는 제사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 즉 하나님께 나아와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주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는 결코 정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강요나 협박은 더더욱 아닙니다. 회개는 곧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몸 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교리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업보를 받든지 아니면 참회하는 것뿐 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도 인간들이 죄에 대해 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화를 면하기 위해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서 그 신을 달래는 것뿐 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25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1:18)”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용서’가 실제로 그것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용서가 아무에게나 사용되고 너무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눈 속임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가볍게 대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판단하시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의 마음과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며(왕상8:39),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렘17:10). 더불어 요한복음 2장25절에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인 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